

**부활절
설교**

부활의 소망

<마가복음 16:1~8>



주 문 홍 목사 (고쿠라교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유족의 연락으로 장례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임종식, 입관식, (임시전야식), 전야식, 고별식, 화장전식, 납골식. 카이로스의 때를 망자. 유족과 함께 지내고 한 줌의 때로 남은 고인을 두고 귀가하면 몇 일간 몸살을 합니다. 장례식의 피곤도 있지만 고인과 유족들에게 충분한 묵회 배려가 되었는지 의문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신비의 차원입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도 무덤안에서의 여성들 증언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는 초기 그리스도 신앙공동체가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신자는 심한 박해와 다급한 위기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과 만났을 바락있게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복음의 토대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인정했습니다. (고전15장)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쪽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존재를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귀의했습니다.

복음서나 바울은 부활에 근거한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3/16)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재림의 신앙 위에 형성되어 왔습니다.

고쿠라교회에 부임하여 많은 만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작업전에 돌아가신 가토게이지(1942-1993년)씨는 추도문집을 통해서 만났고 지금도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법서사 일을 하면서 재일 한국 조선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에 분개하여 이웃교회 최창화목사의 인권획득운동을 지원한 일본기독교단의 신도입니다. 51세경, 암이 발견되어 몇 개월의 생존기간을 선고받은 날에 쓴 유서가 문집에 실려 있었습니다.

「내 유골을 가족묘에 안장하지 말고 재일 조선인의 무덤인 현해탄에 산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잠들고 있는 이름없는 운동주들에게 사죄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그녀)들과 손을 붙잡고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여 운동주 시인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가 실려 있었습니다.

북큐슈 지역은 강제노동의 현상이 많고 한국에서 「재일동포의

고난의 현장연수」-화해와 평화기행-의 기획으로 신학생과 장로 교역자의 연수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 때마다 가토씨의 증언을 하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저 자신도 눈물이 나오고, 그 때마다 그 분과 신선한 교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쿠라교회 납골당엔 탄광희생자 유골이 85주 (14주는 불명자)와 신자의 유골이 45주 안치되어 있습니다. 납골당(영생원) 건립을 호소하고 절에서 유골 157주를 인수하여 정중하게 모신 최창화목사. 그 옆에는 존 맥킨토쉬 선교사의 유골(분골)이 있습니다. 40년간 재일대한기독교회 신앙 공동체에 봉사했고 마지막 7년간 고쿠라교회 협력목사와 서남 한국 기독교회관(서남KCC) 총간사로서 수고 했습니다. 65세 정년 퇴임으로 캐나다 귀국 3개월 후 소천했고 그의 희망에 따라 영생원에도 분골이 안치되었습니다.

「재일교회를 섬기기 40년. 앞으로는 그 옆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 특히 이국의 탄광 지하에서 생명을 빼앗긴 형제, 지상에서 작은 존재가 되어 고통 받은자를 큰 존재로서 영접해 주시는 주님. 그 귀중한 친구 옆에서 지내는 행복이여!!」 라는 그의 소리없는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 맥킨토쉬 선교사와 최창화목사의 영향을 받은 고바야시 쇼조씨의 일본YMCA에서 50년간의 활동 중 마지막 임지가 고쿠라였던 그의 유골(분골)도 함께 있습니다.

이와같이 영생원은 생사를 초월한 화해와 희망의 장소로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창화목사는 64세에 소천했는데 그의 묵회 일지와 자료를 볼 때에 개인의 취미나 생활을 즐기는 여유는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의 생명을 복음선교-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길 인권, 사회 정의의 소수자 차별 정책에 항의하는데 몰두한 생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친 전도자였습니다. (답후4 : 7)

우찌무라간조(1861-1930)의 사랑하는 딸 루즈가 18세에 병사하여 치룬 장례식에 「루즈 만세!」 라고 외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는 슬픔의 심연에 빠져있을 때 부활의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역병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궁지에 몰아넣는 위험 위기의 때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서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에 인도하는 은총의 때가 되길 기도합니다.

公 告

在日大韓基督教会熊本教会は2018年 9 月 9 日臨時公同議會を開催し、現在地において会堂と牧師館の建て替えを決定した。

総 予 算 : 6,000万円

木造 2階建 (1階礼拝堂・2階牧師館、建坪約70坪)

工事期間 : 2018年10月 ~ 2019年 4 月

在日大韓基督教会熊本教会

代表役員 金聖孝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제12차 호주 멜번 대회 개최



본 총회가 회원교단으로서 참여하여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교회로 있는 한인교회의 차세대 교육과 목회를 함께 나누며 공유하고 있는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제12차 대회가, 지난 2020년 2월 18일~21일에 호주 멜번의 호주연합교회 소속 한빛교회(장기수목사)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KCCJ에서는 총회장 조영철목사, 교육위원장 김명균목사를 비롯하여 14명이 참석하였다.

「디아스포라, 화해와 회복을 위해 남은 자들」(요엘 2:32, 고후 5:18~19)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John G. Flett목사(Pilgrim Theological College/University of Divinity 교수)를 주제 강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또한 4항목의 발제를 통하여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나누었다. 발제는 (1)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의 시작에서(PCUAS최훈진목사), (2)차세대 신앙계승(UCA 2세 양훈영목사), (3)여성의 리더, 역할(KCCJ 이시바시마리에전도사), (4)Silver Ministry(KCCJ정연원목사).

특별 강연으로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 초기 이야기'를 UCA 양성대목사가 하여, 130년전 호주 선교사들이 조선 전도, 특히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선교하였던 발자취를 배우고 선교사들의 묘지 방문도 하였고, 멜본지역 한인교회 연합으로 드리는 수요일예배에는 총회장 조영철목사가 설교하였다.

2년마다 지역을 돌아가며 대회를 가지는데 다음 제13차 대회는 2022년 4월 경에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부여성회 회장 회의 및 연수회 개최 “주의인도로 시작한 부모와 자녀 카페” 테마로

서부 지방 교회 여성 연합회의 “회장 회의·연수회”가 1월 30일(목) 오전 11시부터 무코가와 교회에서 개최되어 25명(5개 교회)이 참가했다.유정혜 회장의 기도와 사회를 통해 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각 교회 여성회 회장으로부터 연간 활동, 여성회의 현황과 기도의 과제의 보고가 있었다.교회여성회들은 인원수, 상황은 달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히메지 교회와 오카야마 교회, 불참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다.그 후 서기에 의한 2019년도 활동보고가 있었다.점심은 무코가와 교회 여성회의 정성이 담긴 요리를 대접 받았다.

오후의 시간은 강사로 카와니시 교회의 사카구치 치에코 자매를 맞이하여 테마 “주의 인도에 의해 시작한 부모와 자녀 카페”로 연수회를 개최했다.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개방해 시작한 해



피 스쿨이 현재는 카와니시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와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월 1회 개최되고 있어 전도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등의 간증을 들었다. 은혜충만한 시간이었다. (보고:윤풍자)

전국여성회

제21회 성경 세미나 개최 “주님께 접붙임바 된 자로서” 주제로

전국교회여성연합회교육부·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 공동 주최로 제21회 성경 세미나가 2020년 2월 13일(목)~15일(토)까지 후쿠오카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다.참가는 72명이었다.

세미나 강사로 다카미자와 에이코 목사를 모시고 “주님께 접붙임바 된 자로서 ~ 새 시대를 펼쳐가는 교회여성”이라는 주제, 부제로 총3회 강의가 있었다.성경을 파노라마적으로 전망하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제의 역사와 그 속의 여성의 위치와 여성들의 사역을 배우며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둘째 날은 시카노지마 온천에서 친목회도 가지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또한 셋째 날은 다카미자와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몽골 키즈 홈’의 소개와, 몽골의 실상, 맨홀 칠드런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개회예배 설교는 신지선목사(후쿠오카중앙)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폐회예배는 김필순목사(역대총무) “이제는, 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고, 아침 기도회는 서남지방교회의 소개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날 아침은 김마리장로(후쿠오카중앙)의 간증이 있었다.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 서남여성회의 많은 봉사와 섬김의 진심으로 감사!

(보고:김금순
교육국장)



신간 소개

『미완의 독립선언』 -2·8 조선독립선언으로부터 100년-

재일본한국YMCA가 2019년에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연속 세미나와 국제 심포지움의 내용을 『未完の独立宣言』-2·8朝鮮獨立宣言から100年-에 정리하여 출판했다.동 아시아史, 그리스도교史, 여성史, 문학 연구 등, 폭 넓은 시점에서 검토하여, 독립선언이 오늘 우리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의 현대적 고찰까지, 다채로운 내용을 한 권으로 묶었다.한 일 근대사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책으로 권한다.



신간 소개

『한국, 알고 있나요』

제일 한국인의 영향으로 교회(나고야교회)에 다니게 되어 목사의 길을 걷게 된 저자 스즈키 다카히로(鈴木崇巨, 일본기독교단 은퇴)목사가 일본인들이 한일 간의 불행했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단행본을 냈다.‘또 하나의 한국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한일관계를 탄식하며, 진정한 우호를 위해, 일본인이 알아야 할 조선반도 침략의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며, 한국을 본능적으로 차별하고 경계하는 일본의 태도의 뿌리를 찾아 드러내고 있다.양국의 역사, 문화, 인간성을 새롭게 조명함으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혐오를 넘어서는 이해와 친절을 호소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品川 교회 강장식목사의 번역으로 한국어로 출판될 예정이다.





시나가와교회의 어제와 오늘

강 장 식 목사



동경 시나가와구 중심지에 있는 시나가와교회는 1960년을 교회 창립의 해로 정하고, 6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정확한 창립 연도는 알 수 없다. 어느 교포의 증언에 의하면 1940년대에 교회 예배당과 교역자사택으로 사용하는 2층 목조건물이 있었는데, 1945년 연합군의 동경공습 때 폭격을 당하여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동경 남부 중심지에서 교포를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는지 그 활동의 흔적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때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20여 년의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3~4명의 교포신자들이 가정예배로 모이기 시작하며 타다 남은 그루터기에 새 순이 돋기 시작했다. 그 새 순이 오랜 세월을 지나 큰 줄기로 자랐고, 40년간의 성전 없는 광야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본 교회 건물이 헌당되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1967년부터 3~4명이었던 본 교회를 23년 섬긴 경 혜중 명예목사님(2001년 명예목사 추대)께서 여선 교사로서의 헌신과 열정과 비전이 큰 역할을 했다.

본 교회는 40년 이상을, 동경 남부 시나가와구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19년 전부터는, 오이마찌라는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건물까지 헌당하여 정착한 이곳에서 본 교회는 교회 자립과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교포중심의 교회로 시작하여 성장하고 사역해 온 이 지역은 이제, 소수의 교포들이 거류하고 있고, 새로운 한인 유입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의 필요와 정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새로운 선교적 과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지역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며, 나그네 된 삶을 사는 교우들과 교회 울타리 밖의 지역주민들에게 은혜의 샘물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첫째는, 우리는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누구라도 함께 믿음으로 어울리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며, 둘째는, 지역에 친화적인 공동체로 나아감으로 지역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와 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일본국내와 세계선교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일에는 제1부 일본어예배, 제2부 한국어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모국어로 언어에 불편함 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고 있다. 성경공부와 교회학교 예배도, 한국어 일본어 2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재일교포도 재외국민도 극히 소수가 거주하는 지역인 관계로 평소에는 일본어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을 향해서는, 어린이식당(월1회) 지역주민초청 음악회, 여성회 주관의 자선바자회와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문화교실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세계를 향해서는, 청소년들을 해외 선교지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 연수를 다녀오게 하였고, 세계의 빈곤어린이 사역을 하는 단체들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와 작은 정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식당『파스함』경영

3년 전에 지역의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일본어학습지원을 하는 어떤 일본인 할아버지로부터 한가지 제안을 받았다.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을 방치하여 학습과 식생활에 문제가 많은 어린이와, 지역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어린이식당을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 우리교인들 자녀 중에도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재정과 봉사자, 그 이외의 실제적인 과제들로 인해 주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교회 일부 교우들은 이 제안을 듣고 즉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부터 많은 격려와 지원이 있어 3년 전부터 빠지지 않고 월1회씩 어린이식당을 열고 있다.

오릭스宮内財団으로부터는 2회에 걸쳐 67만엔의 재정을, 그리고 구약소와 이웃들을 통해 많은 지원과 기부가 있었고, 부족한 봉사자의 문제는 지역의 넉크리스천 자원봉사자 들을 통해 채워졌다. 부족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면 그 부족함 또한 채워져 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시나가와구는 중산층, 혹은 부촌지역이라고 불리지만, 숨어 지내는 빈곤어린이가 의외로 많다. 물질의 빈곤보다도 정서적인 빈곤에 고독과 고통의 삶을 사는 주민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선착순으로 어린이50명, 어른100명엔 60인분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는데, 1시간30분이면 마감할 수 밖에 없다. 어린이와 고령자, 그리고 모자가정이 주로 오지만, 자녀를 위해 식사준비도 어려운 바쁜 맞벌이 주부들도 찾아온다.

3년간의 우리의 나눔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는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독과 아픔을 지닌 현대인들의 정서적 문제인 마음의 빈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날은 지역주민들로 교회가 들쭉인다. 나 홀로의 고독한 저녁식사를 하는 지역주민과 고령자들은 재갈 거리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고,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고 교회의 유치부 예배실로 달려 들어가 힘차게 뛰어 논다. 그 날 저녁 교회 안팎의 정경을 하늘에서 하나님도 보시고 미소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





KCCJ의 평화통일 선교에 참가하여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장 정 연 원 목사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이하 KCCJ)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선교적 과제로 삼아, 1981년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사회위원회에 〈민족통일 소위원회〉 설치. 이후 1985년에 특별위원회로, 1986년에 명칭변경하여 남북선교위원회로, 1991년 〈평화통일선교위원회〉로 하고 매년 8월 둘째 주일에 전국교회가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 때로부터 KCCJ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추진하였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84년 10월29일~11월2일,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국제위원회가 주최하는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정의〉 협의회가 일본 동경 근교의 〈도잔소〉에서 개최되어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는 이인하목사가 참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KCF) 불참.
- 1986년 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열린 WCC의 평화회의에 남북의 기독교 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 1986년 12월 일본NCC 대표 3명(隅谷三喜、中嶋正昭、前島宗甫)이 처음으로 공화국 방문.
- 1988년 7월 〈민족통일에 관한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선언〉 발표, 이 선언문의 8번에 〈총회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본국교회와 일본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대하며 대화를 계속한다〉고 했다.
- 1989년 7월29~8월20일, KCCJ가 처음으로 북한 방문. 김계호목사, 이대경목사, 강영일목사 등.
- 1989년9월29~10월5일, KCF 대표 일본 방문. 김운봉목사. 리성봉목사 등. 일본NCC 초청으로. 한국NCC등과 협의회.
- 1990년12월 제3회 글리온회의 KCCJ 이대경목사, 김안홍총무가 참석.
- 1990년7월10~13일, 제1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
장소 : 동경한국YMCA, 100명 참석, KCF5명 참석
- 1991년7월9~12일, 제2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
장소 : 동경한국YMCA, 78명 참석, KCF4명 참석
- 1991년7월22일~8월1일, 제2차 공화국 방문 김형식총회장 외 3명.
- 1992년10월20~22일, 제3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
장소 : 도잔소, 95명 참석, KCF5명 참석.
- 1993년4월30일~5월11일 제3차 공화국 방문 김원치목사 외 6명,
자전거100대 기증.
- 1994년5월31~6월2일, 제4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
장소 : 동경한국YMCA, 120명 참석, KCF5명 참석.
- 1995년10월9일, 교토남부교회에서 개최된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제43회 정기총회에 강영섭위원장이 참석하여 공동 성찬식을 집례.
- 1996년6월5~7일, 제5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
장소 : 동경교회, 120명 참석, KCF5명 참석.
- 1998년10월8~10일, 제6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오사카회의〉
장소 : 오사카교회, 145명 참석, KCF4명 참석.
주제 :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과 우리 민족 공동체의 미래.
- 1999년11월27~30일, 일본그리스도교회(CCJ) 대표단 공화국 방문.
28일 봉수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대회 의장 히사노마키목사가 사죄문을 낭독.
- 2000년12월12~15일, 제7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후쿠오카회의〉
장소 : 후쿠오카교회, 160명 참석, KCF4명 참석.
- 2002년5월18일~25일 제4차 공화국 방문. 김광조장로 외 9명.
- 2002년7월22~24일, 제8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동경회의〉
장소 : 도잔소, 103명 참석, KCF5명 참석.
주제 : 남북/북남 신앙공동체의 나눔과 섬김.
- 2014년6월16~20일, 도잔소회의의 30주년, 스위스 제네바, 강명철목사 참석, 김병호총간사가 KCCJ의 평화통일 주일 헌금 전달.
- 2016년11월15~17일, WCC주최 평화포럼, 홍콩, 강명철목사, 이정로목사 참석.
김병호총간사가 KCCJ의 평화통일 주일 헌금 전달.
- 그 외에도 전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는 공화국에 연탄보내기 사업을 하였다.
- 2019년7월26일~8월2일, 제5차 공화국 방문. 김중현총회장 외 정연원 선교위원장, 이현지 전국여성회장, 김병호 총간사.
KCCJ의 평화통일 주일 헌금 전달.



1980년대, 1990년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 KCCJ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의견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제공하면서 큰 역할을 감당하여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의 왕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KCCJ는 그 역할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 때부터 18여년이 지난 오늘, 한/조선 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또다시 긴장된 상태에서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의 왕래가 끊어진 상태에 와 있다.

그러한 가운데 KCCJ는 다시금 KCF의 대표를 초청하여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쿄회의〉를 주최하여 개최할 준비에 임하고 있다.

- 일정 : 2020년10월28日(水) 17:00~30日(金) 12:00、在日本韓国YMCA
- 참가인원 : 約100名(韓國教会60名、日本教会10名、世界教会10名、KCCJ20名)
- 내용 : 예배, 성찬식, 강연, 성서연구, 교류 등.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미가 4:3)